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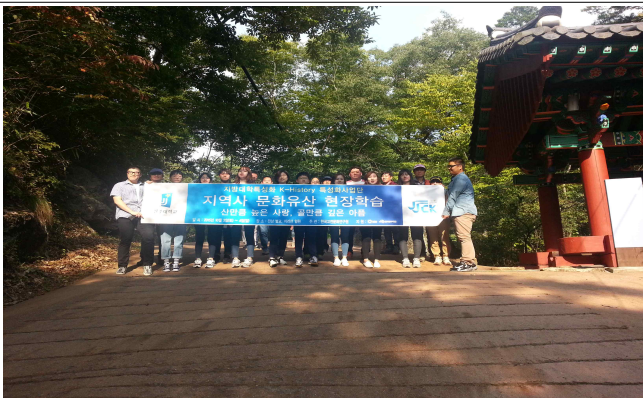


2015년 10월 1주차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추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 10월 3일~4일 이틀에 걸친 연구원 가을 답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롯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답사는 남도 끝자락 별교에서 곡성 동리산 태안사와 구례 오산 사성암,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일정이었습니다. 일정 내내 청년의 열정을 뽐내신 칠순의 김익남 회원부터 이제 35개월에 접어든 이인제 회원의 막내아들까지 전세대가 모두 만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의 심장으로 들어갔다 온 이번 답사에 함께 하지 못해 아쉬운 분들에게 기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다음 번 답사는 12월 중순 부산으로 예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더 뜨겁고 진중한 시간 보낼 기회, 이번에는 꼭 잡으시길 빌겠습니다.



○ GHS 남산 역사기행 안내

: 연구원 가을 답사에 이어 부설연구소인 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에서 준비한 남산 역사 기행이 10월 17일(토)에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서울 남산으로 오실 힘과 시간만 있으신 분은 환영하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일제 시대 조선신궁부터 군사정권시절의 흔적인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터를 더듬어보는 시간으로 GHS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남산 답사에서 더 많은 회원분들과 웃는 얼굴로 뵙게 되길 바랍니다.

○ 독도 바로 알기 UCC, 에세이 공모전

: 한국고전문화연구원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K-History 2H 핵심인력양성사업단과 함께 “독도 바로 알기 UCC, 에세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독도에 대한 국내외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보다 정확한 인식을 갖추는데 함께 하고자 하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응모기간 : 2015.09.14.(월) ~ 10.21.(수)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공모주제 : 독도 바로 알기(UCC, 에세이)
-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hangoyeon@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0월 05일(월) : 주간회의(14시)
- 10월 08일(목) : 법인업무보고(10시)

■ 역사속의 오늘

○ 경신 대참변의 序幕 - 1920. 10. 5

: 기미년의 만세 소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을 때였다. 조선 팔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만주와 연해주, 중국 대륙까지 조선인이 있던 곳이라면 어디든지 태극기가 물결쳤다. 더군다나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간도 지역은 '불령선인'들의 집결지였고 그를 근거로 한 독립군들의 활동도 눈부셨다.

눈에 불을 켜고 복수의 칼날을 갈던 일제는 마침내 그 마각을 드러낸다. 1920년 10월 2일 훈춘의 일본 영사관이 마적에 의해 습격당하자 이 사건을 빌미삼아 월등한 무력으로 간도 지역의 독립군을 뿌리뽑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이른바 "훈춘 사건"이 나자마자 조선에 주둔하던 사단 병력이 움직이고 1920년 10월 5일 그 선봉의 하나였던 야마모토 중대가 독립군 10명을 사살한다. 그 뒤 간도 지방에 살육의 태풍을 몰고 온 악마의 군대의 첫발이었다.

독립군을 소탕하려던 일제의 계획은 처음부터 차질을 빚는다. 독립군은 일본군 출병 이전에 안전 지대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를 추격하던 일본군이 최악의 참패를 당한 것이다.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였다.

그러나 간도, 훈춘 일대의 조선인들은 그 양값음의 대상이 되고 만다.

"각처 촌락의 인가, 교회, 학교 및 양곡 수만 석을 불태우고, 남녀노유를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매질하여 죽이고 결박하여 죽이고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발로 차서 죽이고 찢어 죽이고 생매장하고 불에 태우고 가마에 삶고 해부하고 코를 꿰고 가족을 벗기고, 사지를 못박고, 인류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오락 삼아 하였다." (박은식 저 한국 독립운동지혈사 하편 제 30장 '왜적 학살 아 양민 지 대참화 中)

이른바 경신대참변. 일본군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수법을 동원하여 간도의 조선인 사회를 유린했다. 1920년 10월 5일을 기점으로 그 해 연말까지 죽어간 조선인들의 수는 3만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한다.

그런 세월을 겪은 이들의 후예치고는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잊고 살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통치가 근대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식의 논리에 선뜻 빠져들기도 한다.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 친일파 척결은 이미 사라져 버린 꿈이라 쳐도, 그 역사적 평가조차 지지부진한 것은 1920년 오늘 조선말을 쓴다는 이유로 속절없이 죽어간 이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 조선 여인 민자영의 죽음 - 1895. 10. 8

: 1895년 양력 10월 8일 새벽 새로 부임한 이후 공사관에 틀어박혀 불경을 외우며 연막을 퍼던 일본 공사 미우라는 행동을 개시한다. 청일전쟁 이후 벌어진 삼국 간섭 이후 콧대가 꺾인 일본을 러시아와 미국의 힘을 빌려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조선 조정에 무력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 '거사'는 일본인들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다. 친일적이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받은 조선군 훈련대 병사들도 가담했고 대원군도 며느리가 죽어가던 그 시간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입궐을 준비하고 있었다. 훈련대장 홍계훈이 일본 낭인들과 조선군 훈련대원들을 막아서다가 죽음을 당한 후, 지엄한 구중궁궐은 난폭한 폭도들의 놀이터가 됐다. 왕의 침전에 칼을 든 폭도들이 몰려들었고, 왕세자는 상투를 잡히고 칼등으로 얻어맞아 혼이 나가 버린다.

드디어 폭도들은 왕비의 거처에 난입한다. 왕비는 아수라장 와중에 죽음을 당한다.

왕비의 죽음을 확인한 것은 조선군 훈련대 제2대 대장 우범선이였다.(불세출의 조선인 육종학자 우장춘의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시신은 기름이 끼얹어져졌고 한 줌의 흙과 뺏조각으로 변해 버렸다.

한 나라의 왕비로서는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이었으나 왕비 개인으로서는 그 죽음으로 그녀가 쌓아왔던 악명을 일거에 허무는 죽음이기도 했다.

나라의 명을 재촉하고 가빠져만 가는 숨통을 틀어막았던 민씨 척족의 우두머리였던 그녀의 목숨은 임오군란 당시 왕비를 때려 죽여라는 민중들의 함성 속에 끝났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나라 백성들을 때려잡아 달라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고 끝내는 자신의 나라를 다른 나라끼리의 전쟁터로 제공하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 일본 폭도들을 도운 조선군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의 말은 의외로 견결하다. **“나는 무부(武夫)요. 특별한 정견은 없으나 그 당우(黨羽 - 왕비 세력)를 일소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든 조선을 바꿀 수 없소.”** --<한말 인물의 회상> 권동진 저 중에서

우범선의 생각은 당시 왕비라면 이를 갈던 대다수 조선 백성들의 생각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아니기도 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일테니...

오늘은 명성황후이자 민비, 그리고 조선여인 민자영이 비참하게 죽어간 날이다.